

중기부 산하기관들, 중소·벤처 ‘성장 사다리’ 복원 나선다

중진공, 11.5조 정책금융 성장 견인 기보, ‘해외 기술금융 허브’ 비전 제시
기정원, ‘돈 되는 R&D’ 집중 지원
공영협소평, AI·데이터 전환 추진
한벤투, 벤처투자 활성화위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탄탄한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초부터 분주한 모습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기부의 핵심 목표는 분명하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제시했다.

4일 개별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규모를 총 11조5129억원으로 확정했다. 중진공은 이들 예산을 ▲생산적 정책금융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 ▲수출 지원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도약 지원 ▲지역·AI·인재 중심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진짜 성장’을 견인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정책 금융을 인공지능(A), 바이오(B), 문화콘텐츠(C), 방산우주항공(D), 에너지(E), 제조혁신(F)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 지원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사업도 더욱 확대한



한성숙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하반기 주재한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한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중기부

다. 중소기업의 AI 솔루션 도입, AI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 AI 사업단’ 운영이 대표적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금년에는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현장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사적 지원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지난 2일 부산 본사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 허브’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

했다. 기보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외를 아우르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기술금융의 중심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원 확대 ▲기술거래 보호·M&A 활성화를 통한 상생과 공정성장 실현 ▲AI 전환(AX)에 기반한 업무 및 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제시하며 국가·기업·기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올해 ‘성장’에 방점을 뒀다. 기정원은 올해 ‘기술사업화 R&D’ 부문에선 사업화 전용 사업을 신설해 ‘돈이 되는 R&D’에 집중 지원한다.

‘민간투자연계 R&D’는 틱스(TIP S)→스케일업틱스→글로벌틱스로 사업을 재편,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지원 과정에서 지역기업도 우대한다.

공영협소평은 ▲공공성과 공정성 중심의 플랫폼 가치 강화 ▲AI·데이터 기

반의 디지털 전환 추진 ▲고객 경험 혁신과 신뢰 기반 서비스 재정립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공영협소평 김영주 대표 대행은 신년사에서 “올 한 해는 조직문화 개선, 내부 소통 강화, 직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 임직원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 현 박성호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말 기관장 모집절차를 진행해 2배수까지 압축하는 등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조성’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한국벤처투자는 기존의 ‘6본부 3실 20팀 6사무소 1센터’에서 ‘6본부 4실 23팀 6사무소 2센터’로 조직을 개편,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희 대표는 “이번 조직 개편은 연 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 펀드 관리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새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첫단계”라며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목동 행복나베크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중기벤처 판로를 담당하는 한국중소벤처유통원은 이달 15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홈쇼핑

적립·결제혜택 강화

이달 한 달간 신년 감사 이벤트

홈쇼핑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전사 프로모션 ‘2026 &클럽 골든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4일 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풍성한 경품과 적립 혜택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이벤트로, 페스티벌 기간 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주문 1건당 응모권 1매를 지급한다. 또 추첨을 통해 플래티넘 유지권, 골드바, 적립금 등 다양한 신년 선물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는 ‘벨런스게임’ 이벤트를 통해 구매 고객에게 주문 1건당 1회의 응모 기회를 부여하고, 총 2026명을 추첨해 적립금 및 현금 혜택을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제 혜택도 강화했다. 1월 중 홈&Pay 주말 행사 기간에 3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즉시 할인을 제공하며, 홈&Pay 생애 첫 결제 고객에게는 5000원 추가 적립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빅적립데이’는 1차 4일, 2차 15일, 3차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해당 기간 기획전 상품을 모바일로 구매할 경우 10% 추가 적립 혜택을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홈쇼핑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전사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쇼핑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신년사

“위기돌파 해법, 기술 경쟁력”

이차전지 침체 속 ‘기술 경쟁력’ 돌파구
기술 리더십·글로벌 고도화 ‘경영 2.0’
원가 혁신·설비 효율로 흑자체제 추진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기술로 성장해온 에코프로가 위기를 돌파하려면 차별화된 연구개발(R&D)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 창업주가 지난 2일 청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이차전지 시장 침체 등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결국 답은 본원적 기술 경쟁력에 있다”며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돌파구를 찾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에코프로는 올해 경영방침으로 ▲기술 리더십 강화 ▲해외 사업장 고도화 ▲고객 다변화 ▲손익경영 강화를 통한 흑자체제 구축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다. 기술 리더십과 관련해선 오픈 이노베이션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신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업은 올해를 ‘글로벌 경영 2.0’ 원년으로 삼아 고도화한다. 유럽 전조기지인 헝가리 공장은 상반기 상업생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품질·안전 환경 등 관리 체계를 한층 정교화하고, 인도네시아 제련소는 이익 구조를 더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객 신뢰 강화와 신규 고객 확보도 병행한다. 이 창업주는 “고객과 함께



2일 청주 본사에서 개최한 에코프로 그룹 시무식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에코프로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제공하고 상생 기반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SDI, SK온 등 파트너와 함께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가동률 제고, 원가 혁신,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해 올해 전 사업장의 흑자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룹 내 가족사 물적 자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창업주는 “임직원 3600명 모두가 에코프로의 주인”이라며 “수처행주의 정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효율·안정감 모두 챙긴 전기 세단”



자동차 시승기

기아 EV4

주행의 균형·완성도 높은 전기차
장시간 운전도 부담없는 주행 완성

전기차를 평가하는 잣대는 확실히 바뀌었다. 수치로 드러나는 성능보다 운전자가 느끼는 질감과 완성도가 더 중요해졌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기아 EV4는 전기차 특유의 과장된 감각을 덜어내고, 운전의 흐름 자체를 매끄럽게 다듬은 세단에 가깝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EV4를 타고 2박3일 동안 군산 일대를 달렸다. 도심과 국도, 고속도로 등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섞인 주행이었고 히터와 온열시트는 계속 켜 둔 상태였다. 주행을 마친 뒤 계기판에 표시된 전비는 7.1km/kWh 공인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전기차에서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다.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전비 그래프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운전자가 효율을 의식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리듬을 유지한다는 느낌이 강했다.

EV4의 주행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반응은 즉각적이지만 공격적이지 않다. 튀어나가는 대신 속도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심에서는 흐름을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속하고, 국도에서는 필요할 만큼만 힘을 보태며 여유 있게 속도를 끌어올린다. 전기차 특유의 급가속이 주는 긴장감보다



기아 EV4.

/기아

는, 잘 다듬어진 세단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향과 차체 반응은 어색하지 않게 통일된 느낌을 준다. 스티어링 휠은 가볍지만 허전하지 않고, 핸들을 돌리는 만큼 차체가 즉각 반응한다. 군산 시내의 좁은 골목이나 교차로에서는 차가 작게 느껴질 정도로 움직임이 경쾌하고, 급하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순간에도 차가 먼저 반응해 주면서 운전자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노면에서의 주행은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을 때 충격을 단번에 눌러버리기 보다는, 한번 걸러 부드럽게 풀어낸다. 저속에서는 묵직한 세단처럼 노면을 눌러주고, 속도가 붙으면 안정감을 더한다. 노면 상태가 달라져도 차의 반응이 갑자기 변하지 않고, 전 구간에서 일정한 감각을 유지한다는 점이 EV4 주행의 핵심이다. 전기차에서 종종 느껴지는 팔려감이나 이질적인 감속감도 거의 없다.

/이승용 기자 lsy2665@